2012 1·2월호 제435호

주부교실

사단법인 전국주부교실중앙회
NATIONAL COUNCIL OF HOMEMAKERS' CLASSES

K water

희망이 흐르는 대한민국

물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자원입니다.
생명을 키우고, 에너지를 만들고,
새로운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소중한 물.
물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 희망을 채워갑니다.

물로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K-water

수자원시설 건설·관리
- 소양강, 충주댐 등 전국의 16개 다목적댐과 수자원시설 운영
- 홍수와 가뭄의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용수공급

상하수도 건설·관리
- 전국 상수도 생산량의 49%를 차지하는 3,415백만㎥ 공급
-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하수도 통합 운영·관리

국가산업단지 및 신도시 조성
- 창원, 구미 등 국가산업단지 조성
- 의산신도시, 송산그린시티 등 신도시 조성

녹색성장 사업
- 시화조력발전소, 합천호 수상태양광, 아라뱃길 풍력발전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사업

해외사업
- 40여 년간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등 21개국에 물기술 수출

본회는
주부의 사회성을
개발하고, 봉사정신을
함양함으로써
가정과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주부에게 부하된 사명과
역할을 체득 실천함에
있어 주부중심,
지역중심의 조직 및
활동전개로 새 주부상을
정립해 나간다.

주부교실 1·2월호

발 행 일 : 2012. 1. 20
등 록 일 : 1972. 8. 31
등록번호 : 라-1616호

✻발 행 : 사단법인전국주부교실중앙회
발행인 : 안명수
편집인 : 임경애
담 당 : 원혜진
주 소 : 서울시 중구 충무로 5가 19-3
전 화 : 2265-3627, 3628, 0637
2266-5870, 2273-6300, 2485
F A X : 2279-9341
http://www.nchc.or.kr
✻인 쇄 : (주)헤럴드미디어
대표 박 행 환

비매품

2012 통권 제435호 1·2

신년사	4	건강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매진하는 해로 / 안명수
새해새포부	6	부산 – 건전 소비문화 정착에 동참할 것 / 김기묘
	7	대구 – 가정과 지역의 '만능 살림꾼'으로 역할 다할 것 / 손기순
	7	인천 – 사랑과 봉사로 거듭나는 인천 주부교실로 / 이순애
	8	광주 – 환경과 연계된 다양한 소비자운동 전개 / 박영희
	9	대전 – 건전한 가정문화와 소비자 주권 확립에 앞장 / 송병희
	10	울산 – 선진국 도약을 위해 '여성의 힘' 모을 것 / 박보봉
	10	경기 –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는 성장의 해로 / 박명자
	11	강원 – 모범적인 봉사단체로서 자리매김할 터 / 이경순
	12	충북 – 여성의 의식개혁에 주력할 것 / 최광옥
	12	충남 – '회원의 힘과 지혜' 모아 지역발전에 기여 / 조춘자
	13	전북 –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과 봉사활동 펼칠 터 / 강정자
	14	전남 – 녹색사회 구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 / 이송자
	15	경북 – '나눔과 배려' 실천으로 사회발전에 기여 / 이인호
	15	경남 – '조화와 소통으로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 주부교실'로 / 김점숙
	16	제주 – 녹색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 / 김영희
가격조사	17	설 제수용품, 재래시장이 가장 저렴 / 본회 대전광역시지부
소비자정보	19	정장 구입시 유의사항 / 정희중
상담사례	20	소비자의 소리 / 김영란
에세이	22	그것은 정말 상상이었을까 / 신중선
봉사활동소감	24	90분의 훈훈함 / 이춘반
중앙회소식	26	시무식, 합창단 24주년 기념식 및 총회
지부소식	27	전국 16개 시·도 지부 및 232개 시·군·구 지회 소식
주부교실시판	34	〈경제특강〉 및 〈세계 물의 날 기념 세미나〉

〈표지사진 : 2012년도 시무식(중앙회, 2012. 1. 4), 사랑의 김장 나누기(경상남도지부, 2011. 12. 6)〉

신년사

건강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매진하는 해로

안 명 수/ 본회 회장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임진년 용의 해는 육십갑자 중 흑룡의 해를 상징하고 있어 어느 해보다도 기대와 희망에 찬 새날을 열었습니다. 전국의 30여만 명 회원 여러분께서도 흑룡의 기운을 받아 새롭게 비상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지난 1년간 본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회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야 말로 본회가 존립할 수 있는 근간이 되서 우리 사회를 건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이 점에 대해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본회가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봉사단체로 자리매김하도록 저 또한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 임할 것입니다.

지난해 4월 제4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어느새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흔히들 세월의 속도를 자동차의 속도에 견주해서 말하기도 합니다만, 지난해를 돌이켜보니 저에게는 시속 100km로 달려온 시간이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본회의 가장 큰 행사인 창립40주년 기념행사를 비롯해서 전국주부교실지도자대회, 주부대학 총동문회 체육대회 등 크고 작은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단체의 생명력이 조직구성원에 있고 구성원의 참여정도에 따라 단체의 사회기여도가 결정됨을 새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본회가 건전한 사회가 실현되도록 NGO단체로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회원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이번에 특히 창립40주년 행사를 통해 회원들의 본회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확인할 수 있어 다시 한 번 본회의 저력을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본회가 지난해 전개한 사업들을 크게 분류해본다면 식품을 비롯한 각종 분야에서의 안전성 확보운동과 녹색소비실천운동을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안전성 확보운동으로는 내분비계장애물질 관련제품의 올바른 사용법, 농식품원산지표시 이행실태조사, 그린푸드존의 소규모 식품판매업소 위생실태 조사, 우리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홍보사업, 문구점 안전모니터링 등이 있었고 녹색소비실천운동으로는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녹색가정 만들기를 비롯해서 여름철 냉방온도실태조사, 에코우먼도시농부대학, 가정에서의 저탄소 배출 에코프로그램 실천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밖에도 1372상담전화 운영, 의류세탁심의센터 운영, 주부대학, 주부대학원 운영 등도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업들이었습니다.

올해에도 이와 같은 사업을 지속사업으로 꾸준히 전개해 나가면서 특히 물가안정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연초부터 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경제 불확실성과 국내의 소비자물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서민들의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중교통요금 인상으로 물가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올해는 선거가 있어 물가불안 심리는 가중될 것이 예상됩니다.

본회가 연초 36개의 생활필수품을 대상으로 가격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오름세를 보인 품목이 많았습니다. 특히 채소의 경우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어 서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밖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비롯해서 선거에 대비해서 깨끗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설 것이며 사회통합 강화에 힘쓸 것입니다. 이와 병행해서 녹색소비실천운동도 꾸준히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듯 본회는 우리 사회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열심히 활동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따라서 아무쪼록 회원 여러분께서도 본회가 건강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앞장서는 지도자로서 어느해 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새해 새포부

본회의 각 시 · 도 지부의 회장들로부터
올해 지부에서 전개할
사업 및 활동 방향에 대해 알아본다

부산광역시지부

건전 소비문화 정착에 동참할 것

〈회장 **김기묘**〉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신묘년(辛卯年)이 저물고, 흑룡(黑龍)의 해인 임진년(壬辰年)이 다가온다. 흑룡의 해는 60년 만에 한번 도래한다는 좋은 기운의 해를 말하는데 용은 용기와 비상, 희망을 상징한다. 여러분도 임진년에는 다들 좋은 기운을 받아 용기를 갖고 목표를 향해 멀리 비상(飛上)하시길 기원한다.

지난 한 해 동안 지속적인 물가 폭등으로 주부들의 가게 부담이 얼마나 클지 짐작되어 걱정이다. 정신없이 뛰어온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 우리 지부는 어려움 속에서도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힘입어 각 사업들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린스타트, 그린리더양성교육, 농촌체험 등 경제 사업으로 소비자 전문가 상담교육을 통하여 상담원 양성 교육과정을 수료함과 정비된 상담원의 역할로 인한 질적으로 향상된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소비자 고발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된 유익한 정보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였다.

지회 활성화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임원 및 회원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지금같이 경제가 어려울수록 소비자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건전한 소비심리와 소비활동이 경기회복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올해는 경제 살리기 운동에 소비생활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신용 사회구현을 위한 신용사회, 행복한 부산 만들기에 전력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올해는 희망, 불안이 공존하는 변화무상한 시기이다. 혼자 꾸는 꿈은 꿈일뿐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실현된다고 한다.

좋은 세상을 향해 원만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주부교실 부산지부가 앞장서는 봉사자로서의 각오를 새로이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해가되겠다.

대구광역시지부

가정과 지역의 '만능 살림꾼'으로 역할 다할 것

〈회장 **손기순**〉

다사다난 했던 2011 신묘년이 세월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60년만에 찾아온다는 흑룡의 해가 활기차게 떠올랐다. 흑룡은 용기와 비상, 희망을 상징한다고 한다. 새로 맞이한 2012년 용의 해, 상서로운 기운을 뿜는 희망을 기대하며 모든이들이 사랑과 관심으로 서로 보듬어주고 화합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2011년 대구지역에서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세계 속의 도시로의 도약을 이루었다. 지역민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마음을 합쳐 이루어낸 쾌거로서 대구지부 회원들도 봉사자로서 경기장 진행요원으로, 국제대회 참관을 위하여 방문한 외국인들의 안전을 위한 시민감시단원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며 "함께" 협력하면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다는 신념과 세계 속의 대구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경험할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들이었다.

지난해는 특히 갑작스런 단전사태로 전국이 비상사태를 경험하며 에너지 관련 캠페인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여 에너지관리공단 대경지역본부로부터 상을 받기도 하였다. 한달 1~2회의 이른 아침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대구지부 회원들이 자랑스럽고 감사하다.

2012년 대구지부는 지속적인 활동으로 다문화가족을 위한 합리적인 소비생활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경제교육, 취약계층아동들을 위한 심리치료 교실, 대구지역 성매매방지를 위한 시민감시단 활동 등 뿐 아니라 회원들을 중심으로 문화와 역사를 배우며 회원들 스스로 지역의 문제(학교폭력, 혼동속의 불미스런 선거 풍토 등), 알뜰하고 합리적인 녹색생활 실천가정 만들기, 지역사랑 시민의 역할배우고 실천하기 등을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실천하여 안에서는 지혜로운 집안 살림꾼, 밖에서는 든든한 지역일꾼으로 자부심을 갖고 활동하여 지역의 바램, 전국주부교실 중앙회와 대구지부의 바램, 각 회원들의 가정의 바램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2012년 흑룡의 해가 되기를 바래본다.

인천광역시지부

사랑과 봉사로 거듭나는 인천 주부교실로

〈회장 **이순애**〉

임진년의 첫 태양이 떠오른다. 겨우내 마른 앙상한 나뭇가지들 사이로 봄을 기다리는 꽃눈과 잎눈들이 보인다. 꽃눈과 잎눈 트는 소리에 봄은 이내 한걸음에 다가올 것이다.

인천시지부 회장직에 취임하게 된 첫해가 시작되었다. 인천광역시 주부교실의 회장이라는 자리를 맡게 되니 긴장과 설렘이 교차한다.

새해의 시작과 함께 새로이 그림을 그려본다. 올해 내가 꿈꾸는 인천광역시 주부교실은 밝은 에너지가 넘쳐나는 화합의 장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회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사랑과 봉사로 거듭나는 인천 주부교실이 되도록 하며 또한 사무실에는 항상 사람들로 활기가 넘치도록 하고, 지역 시민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으로 우리의 역할을 찾아나가도

록 노력하려 한다.

인천광역시 주부교실은 자원봉사인증기관이다. 20년 넘도록 상담자원 봉사를 해온 나의 경험을 살려 상담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화합을 유도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갈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이 환경을 지키기 위해 봉사하는 시간을 봉사점수로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참여를 높이겠다.

또한 사회적 요구에 의해 새롭게 준비해야 할 사업과 지속적으로 펼쳐야할 사업을 능률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도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 지구를 지키고 생활의 풍요 속에서 아까운줄 모르고 낭비하는 습관을 바꾸어 줄 수 있는 환경을 중시하는 녹색 지구를 만드는 일에 주력할 것이다. 2006년부터 꾸준히 시행하여온 '인천사랑 우리가 지키자' 는 자라나는 어린이 때부터 인천에 대한 애향심을 키우고 유적지를 돌아보며 우리 인천의 역사와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 대하여 돌아볼 수 있는 학습의 장이 되어가고 있다.

앞으로 인천시지부는 국제도시 인천이 성장하는 걸음에 발맞추어 함께 성장하는 주부교실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광주광역시지부

환경과 연계된 다양한 소비자운동 전개

〈회장 **박영희**〉

중앙회와 더불어 광주시지부가 40년의 역사 속에서 여성운동의 메카로써 지역사회에 크게 이바지하여 왔다.

남녀 평등사회가 요구되는 시대에서 이제는 여성 상위시대로 전환되어가는 시기에 그 역할들은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그 성과는 오늘날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항상 시대정신에 앞장서는 우리 선배님들의 지혜에 찬사를 보내면서 2012년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한다.

지난해에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몹시 혼란한 한 해였는데 올해는 20년 만에 온다는 총선과 대선이 한꺼번에 치러지는 해이기에 사회의 분위기가 더욱 복잡다단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지난 해 본 시지부에서는 환경부 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량제 사업을 시범적으로 펼쳤는데 그 반응이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이었다. 금년에도 환경사업의 중요성을 펼치는 캠페인 사업과 지역의 학계, 언론계 등등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서 환경의 중요성을 모색해보고 실천에 옮기는 사업을 펼치겠다.

또한 지역경제의 위기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경제 세미나 및 지역기업탐방으로 경제를 느끼게 하는 사업과 친환경 사업으로 농촌체험활동을 펼칠 것이다.

소비자운동으로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교육을 실시하고, 에너지절약을 생활화하는 캠페인과 청소년층을 겨냥한 리더십 교육을 펼쳐 보겠다.

지속적인 사업으로 가장 큰 사업인 주부대학이 금년 30년째 되는 해이기에 평생교육사업의 일환으로 그 의미를 다해 볼 것이다. 이러한 봉사활동을 통해 주부들의 사회성을 개발하고 우리 사회의 소통과 나눔의 문화를 확산하여 따뜻하고 희망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한 해 동안에 회원님들이 보내주신 사랑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한다.

대전광역시지부

건전한 가정문화와 소비자 주권 확립에 앞장

〈회장 **송병희**〉

금년은 용이 비상한다는 임진년이다. 2012년은 용이 승천해 활개를 치듯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많은 업적을 남기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지난 2011년은 참 바쁜 한해였고, 바삐 움직인 것 만큼 좋은 결과를 얻기도 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소재 프랜차이즈 우선이용하기 시민의식조사, 캠페인,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고,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시민의식조사 등 청렴부패 관련 사업도 진행했다. 또한 지속적인 물가조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유통업계별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물가안정에 힘을 보탰다.

'함께라면 좋은 세상' 을 주제로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홀로 사시는 어르신께 안부전화 드리기, 어르신 찾아뵙기, 홀로 사는 어르신 위안잔치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고 또한 헌옷, 신문 등을 수거해 장학금을 조성하여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였다.

더불어 길거리 캠페인, 교육, 시민의식조사를 통해 대중교통이용과 교통카드 활성화를 유도하여 녹색환경 녹색도시 대전 만들기에 힘을 기울였다.

무엇보다 2011년 10월 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 시행을 앞두고 실시한 종량제의 필요성 및 올바른 정착을 위한 교육, 시민의식조사, 캠페인은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이끌어내 우리 주부교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자부심을 갖기도 했습니다.

대전주부교실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탄방청소년문화의집은 지역민의 적극적인 호응속에서 이용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참가, 3대3 길거리 농구대회 개최, 대학탐방, 갯벌체험, 사랑 · 나눔 · 실천, 보드게임대회, 에코백 만들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들의 소질개발은 물론 다양성을 추구하는 청소년들의 요구에 부응하였다.

2012년 대전주부교실은 가족 및 삶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관련 교육 을 대폭 확대하고 다양화하고자 한다. 모자캠프, 농촌 체험활동 등을 강화하고 가족문제를 조율할 가족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며 다변화된 사회를 맞아 심각한 소비자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만큼 어린이 경제교육, 청소년 소비자교육과 노인소비자교육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을 돕기 위해 정기물가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며,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품 팔아주기 운동에 앞장서 청렴한 사회구현을 위한 청렴콜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나눔, 실천과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23번째가 될 소비자 정보전시회는 보다 유용한 자료 발굴과 전시방법 다양화로 소비자 의식수준 향상을 위한 발판 마련의 장으로 활용하겠으며, 35회를 맞는 주부교실 회원 친선운동회는 회원들의 결집된 힘을 이끌어내 여성운동과 소비자운동을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겠다.

올 한해도 대전주부교실은 그동안의 성과에 자

족하지 않고 소비자 주권확립과 여성의 사회성 개발, 봉사정신 함양, 청소년 보호 육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2012년 마음과 마음이 소통하여 함께하는 넉넉함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

울산광역시지부

선진국 도약을 위해 '여성의 힘' 모을 것

〈회장 **박보봉**〉

존경하는 전국주부교실 회원 여러분!

지난 한 해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확대, 주부들의 삶의 질 개선, 소비자 권익보호, 합리적 소비생활, 화목한 가정 만들기, 봉사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소외된 이웃을 위한 이웃사랑 실천 등 여러 분야의 행사와 활동에 참여해주신 회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각자의 분야에서 주부교실 발전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울산광역시지부 운영위원과 회원 여러분, 5개 구·군 지회장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말없이 자신의 소임을 다해준 지부 실무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를 보낸다.

2012년 새해도 가정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행복한 가정 만들기, 소비자 권익보호, 청소년 환경탐사대, 생태자전거교실, 자원봉사자 양성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업운영과 함께 더불어 배려하며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는 한해가 되었으면 한다.

배려하고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 사회 문화적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며, 우리 여성들의 따뜻하지만 강력한 힘으로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더 앞서가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전국주부교실 회원들의 절대적인 힘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대망의 임진년(壬辰年) 흑룡의 해!

전국주부교실 회원 여러분은 용의 기상과 위풍을 가지고 해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자세로 자신의 분야와 가정에서 멋지고 힘차게 활동하여 2012년 12월에는 회원 여러분 모두 행복과 성공이라는 여의주를 물고 승천할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경기도지부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는 성장의 해로

〈회장 **박명자**〉

신묘년에 토끼처럼 두 배 세 배 더 뛰었다면 임진년 새해에는 승천하는 용처럼 그 꿈을 향해 날아오르는 힘찬 한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지난 한해도 취약계층을 위한 소비자교육과 소비자정보전시회 등을 실시하여 소비자의 권익향상과 보호에 앞장섰으며 불안한 물가안정을 위하여 물가안정캠페인 및 가격조사 사업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합리적인 소비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또한 농축산물직거래장터 운영 및 알뜰시장 바자회를 개최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먹거리를 제공, 소비촉진활성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바자회를 통한 수익금을 아동보육시설 등에 기부하고 봉사활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특히, 31개 시·군 지회장님과 함께 광주 어린이재단의 한사랑마을 (중증장애아동)에 봉사활동을 한 것을 잊을 수가 없다. 의·식·주마저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그들을 보며 좋은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감사했고 더욱 주위를 돌아보고 나눔과 사랑을 많이 베풀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연중행사로 지속적인 도움과 봉사활동을 하기로 결심했던 일들이 떠오른다. 나눔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물질적인 도움보다 사랑과 손길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곳도 있다는 것에 주부교실 경기도지부 지회장님 및 회원님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정성껏 먹이고 닦였던 그 곳이 새해를 맞아 더욱 더 시린 마음으로 떠오른다.

올해도 소비자의 주권향상과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에 더욱 더 매진하여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는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존경하는 경기도주부교실 가족 여러분!

하루를 지내고 나면 더 즐거운 하루가 오고, 좋은 일이 생기면 더 행복한 일을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더불어 소중한 꿈을 이루시기를 다시 한 번 두 손 모아 기도한다.

강원도지부

모범적인 봉사단체로서 자리매김할 터

〈회장 **이경순**〉

전국주부교실 가족 모두가 새해에는 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큰 성취가 있기를 기원한다.

새해 벽두부터 특히, 정치계에서 '약진하는 여성상' 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바, '부드러운 카리스마' 가 그 약진의 밑거름이라고들 한다. 바야흐로 여성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되고 부각되는 시대가 시작되었다. 아울러, 주부들에게도 더 높은 자긍심과 더욱 진취적이고 합리적인 인식과 활동상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임진년 새해는 강원도지부가 새롭게 도약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하는 강원도지부는 이제 장년을 맞아 그동안 다소 침체됐던 기간을 '더욱 높이 뛰기 위해 잠시 몸을 구부렸던 시기' 로 삼아 힘찬 도약을 하고자 한다.

우선, 그러기 위해서 강원도지부에서는 올 한 해를 16개 지회 조직을 살리고, 정비하며, 보완해 튼튼한 지회, 탄탄한 지부 만들기에 주력하고자 한다.

아울러, 상반기 지회장 회의와 하반기엔 전 회원을 대상으로 1박2일 워크샵을 정례화해 강원도지부의 결속을 다지고, 대외적으로 도지부의 위상을 각인시키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나아가 올해 말 쯤 소략하나마 강원도지부 회지도 만들어보려 한다.

작년 4월에 직책을 맡은 지라, 작년 한해는 중앙회와 연계된 사업 외에 두드러진 자체 활동은 미흡했다고 자평한다. 올해는 기존의 소비자단체로서의 역량을 보여주는 연계프로그램의 실시는 물론이고, 한국가정과 다문화가정을 엮는 '온누리an 희망제작소' 프로그램과 저출산대책 '순풍, 순풍, 순풍' 프로젝트 등을 지자체 등에 신청했고, 강원도가 청정지역이니만큼 수질보전, 환경보호 관련 봉사활동 영역을 넓혀보고자 한다. 회원들을 실질적이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해 재교육하는

한편, 하반기쯤 회원배가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작년 평창의 동계올림픽 유치는 강원도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잊지 못할 쾌거였다. 올해는 그 올림픽을 위한 투자가 시작되는 해이므로 평창을 비롯해 태백, 정선, 영월 등 인접지역의 각 지회에서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바쁜 한 해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그동안 우리 지회들이 지역사회에서 '모범적인 봉사단체'로 뚜렷이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므로 지자체의 전폭적인 신임 아래 다양하고 효율적인 활동으로 '만점 올림픽 만들기'의 숨은 공로자들이 되리라 믿는다.

저는 올 한 해 각 회원님들의 격려와 단합을 든든한 '빽' 삼아 열심히 노력하겠다. 모쪼록, 강원도지부 회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의지와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면서 올 임진년 용트림 크게 한 번 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충청북도지부

여성의 의식개혁에 주력할 것

〈회장 **최광옥**〉

회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2011년도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금융위기와 북한의 김정일 사망 등 빠른 국제정세의 변화 여파로 국내의 경제는 일반 서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하였고 정치 또한 혼란기에 있었다.

2012년은 대선과 총선이 있는 해로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력이 절실히 필요한 해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여성 특히, 어머니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위기 극복 능력을 발휘해서 그 고비를 잘 넘겨왔다. 올해도 현명한 판단으로 위기를 잘 넘기리라 본다.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충북 주부교실에서는 각종 봉사는 물론 지역의 특성에 맞게 생활전반에 걸친 의식개혁사업으로 새로운 가치관 구축에 노력할 계획이다.

경력단절여성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특강과 직업 상담을 통한 일자리 추천을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쓰레기 분류배출 선도사업을 통한 환경보존과 깨끗한 환경 물려주기로 시민의식 개혁에 앞장설 것이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절약과 소비자권익 보호 사업을 더 한층 체계화시켜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이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체득하고 실천에 옮기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12개 시 · 군 회원 여러분들과 소통하여 협력할 것이다.

전국주부교실 회원 여러분 2012년 흑룡의 해를 맞이하여 용의 기상을 받아 뜻한바 모두 소원 성취하시고 건강한 한해가 되시길 기원한다.

충청남도지부

'회원의 힘과 지혜' 모아 지역 발전에 기여

〈회장 **조춘자**〉

다사다난했던 신묘년 한해를 아쉬움 속에 보내고 임진년 새해가 밝았다.

금년 한해도 여러분의 희망과 꿈을 실현하고 행복이 넘치는 가정과 지역사회의 복지향상, 소비자 운동의 도약을 진심으로 소망해 본다.

아울러 지역사회 발전과 우리지부 번영을 위해 많은 노력과 적극적인 참여로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운영위원과 시 · 군 회장께 감사드리며, 소비자의 권익보호운동에 말없이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해 주는 실무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특히 지난해는 다른 어느 해 보다도 충남 쌀과 함께 하는 건강생활 캠페인과 더불어 우리 쌀 소비촉진 · 농산물 국민홍보 · 합리적리적인소비생활 구축사업 추진 및 어르신 · 주부 · 청소년 · 어린이 등 각계각층 소비자 피해 예방교육 · 경제교육 · 금융 · 정보통신 소비자 보호활동 사업을 실시하며 우리 단체회원의 신뢰와 위상을 한층 높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자평해 본다.

새해 또 다른 많은 변화와 개혁이 요구되는 중요하고 뜻 깊은 한 해가 될 것이다.

먼저 우리 모두가 변화의 주체가 되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자 우리 회원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가정의 경제뿐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으로 새로운 희망시대를 창출해 갈 수 있도록, 이웃과 함께 동참하는 해로 정하고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첫째, 합리적인 소비생활의 초석이 되며, 소비자 권익보호에 앞장서겠다.

둘째, 밝고 건전한 지역 청소년 보호활동과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지속적 노력과 함께 경제 안정도모를 위해 물가안정 등 소비절약에 최선을 다하겠다.

셋째, 지속가능한 저 탄소 녹색소비문화 정착의 해로 주부의 강한 근성과

기질이 본 바탕이 될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앞장서 역할을 다하겠다.

넷째,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단체의 목적사업에 적합하도록 내실을 기 하여 명실상부한 전국주부교실로 더욱 성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다섯째, 어려운 이웃에 애정 어린 보살핌으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

아울러, 우리사회의 소외계층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등 고독한 사람들을 위해 자매결연 등 자애로운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솔선 참여하며 이웃과 함께 동참하는 훈훈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

전북도지부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과 봉사활동 펼칠 터

〈회장 **강정자**〉

가슴 설레는 시간인 새해 벽두, 우리 주부교실 회원가족 모두에게 많은 행복과 번영을 함께 할 수 있는 큰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행복의 근원을 찾는 우리 주부교실의 모든 활동에 여러분과 함께 함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끌고 가야 할 1년이라는 수레를 생각해 본다.

주부교실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수레 안에는 무엇을 넣으실 것인가? 저는 부족하지만, 전국주부교실 전북도지부 회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그 속에 넣어야 할 사업을 챙겨 가야 할 지금에 이르렀으며, 이제 또 다시 수레의 짐칸을 점검하고 달고 달릴 것과 떼어내야 할 것, 보따리의 크고 작은 것, 중간 중간 내려놓아야 할 것들까지 분류해야 할 몫이 되었다. 수레를 제대로 끌고 가야하고 그 속의 짐 또한 제대로 운반해야 하는 그 막중한 책임이 저의 어깨를 힘 있게 하는 원동력이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수레의 짐

칸이 크면 클수록 수레는 힘이 더 들겠지만, 속에 채워진 것도 많겠지요. 때로는 여러 모양의 덜컹거림이 장애물이 나타남으로 생기겠지요. 그때마다 여러분의 격려와 박수가 저를 또 다시 나아가게 할 것이다.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사)전국주부교실이라는 수레의 형태는 이미 훌륭하게 갖추어진 것이므로 제가 맡고 있는 전북도지부에서는 2012년의 짐칸을 "교육과 봉사"라는 큰 칸을 달고 달릴 예정이다.

먼저, 교육이라는 칸 속에 어린이들의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사 수급을 담당할 영어 스토리텔링지도사 양성과정을 넣겠다. 교육은 미래세대에 대한 강력한 투자 의무이기에 소비자 교육의 일환으로 활동 중심의 청소년 소비자 교육을 채우겠다. 그와 더불어 경력단절 성인을 위한 여러 종류의 모니터링 교육도 함께 담고 갈 것이다.

두 번째, 봉사 부문 칸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초등 돌봄 교실을 위한 자원봉사 교사 파견을 지속할 것이다. 공공 부문 봉사활동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상황들이 주어질 때 국민의 의무와 권리를 위한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함으로 전국주부교실의 위상을 높여 나갈 것이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그러나 수레 짐에 먼지도 낄 수 있고 덜커덩 덜커덩 비포장도로를 갈수도 있겠지요. 수레기사로 나선 저 또한 베테랑 기사라고 하기엔 불완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도와주시고 밀어주실 것을 간구한다. 짐을 제대로 끌고 가려는 충성심은 매우 크오니, 상머슴이 되어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그 힘으로 2012년 짐수레 열심히 밤낮으로 안전하게 끌어가겠다.

전라남도지부

녹색사회 구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

〈회장 **이송자**〉

임진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한 해가 되시길 바란다.

2012년 전라남도지부에서는 녹색생활 실천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녹색가정만들기, 추억이 있는 실개천 가꾸기, 저탄소녹색성장 교육 및 캠페인, 녹색지구인 창작 · 개사곡 경연대회 등을 실시하여 녹색사회 구현에 앞장서겠다.

소비자정보센터 운영, 소비자교육, 물가조사, 물가안정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소비자 권익보호와 합리적인 소비문화 정착에 힘쓰겠다.

전남의 친환경 농산물과 축산물의 우수성 및 안전성을 널리 알림으로써 소비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도농교류 및 친환경 농축산물 현장 견학, 직거래 등을 통하여 친환경 농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다.

여수세계박람회,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국제농업박람회,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성숙한 도민의식 함양 및 녹색 식생활문화 확립을 위한 음식문화개선 운동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여성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 등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전국주부교실의 위상이 한 단계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경상북도지부

'나눔과 배려' 실천으로 사회발전에 기여

〈회장 **이인호**〉

2012년은 60년 만에 찾아오는 흑용의 해라고 한다. 올해는 용의 상징인 용기와 비상으로 주부교실이 더욱 발돋움하고 지역사회에서 굳건히 뿌리 내릴 수 있기를 소망해본다.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늘 아쉬움으로 남지만 지난해는 여러 사업 중 400여명을 대상으로 5차에 걸쳐 실시한 "자녀와 함께하는 녹색 에너지 캠프"는 시의적절하고 참여하는 많은 분들의 호응 속에 결실 있는 행사로 진행되어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보람된 시간이 되었다.

또 개인적으로는 국민훈장(석류장)이라는 귀한 상을 받게 되어 이 기쁨을 주부교실 전국 회원들과 함께 나누며, 모든 영광을 주부교실에 돌린다. 앞으로도 부끄럽지 않은 주부교실 인(人)으로 최선을 다하고 수상의 영광을 더욱 발전하는 기틀로 삼을 것이다.

최근 유럽 발 재정위기, 한 · 미 FTA, 서민경제 위축, 지역간 불균형 등 불안정한 국제정세와 불투명한 경제 환경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우리의 역할이 더욱 요구되고 있으며, 아울러 전 세계의 과제인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은 일상의 숙제로 남아있어 본 시지부에서는 에너지 절감과 녹색소비실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것이다.

최근 노령화사회에서 경제능력이 부족한 노인들을 겨냥하는 온갖 상술이 범람하고 있어 노인회관이나 노인정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소비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고자한다.

또한 미래의 경제 주체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전에 대한 가치관과 무분별한 소비태도를 지양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일깨우기 위한 교육을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할 것이다.

소비자 주권실현을 위한 더 큰 숲을 바라보며 용의 해를 맞이하여 주부교실의 공동체 안에서 주부교실의 저력과 결의로 사회전반에 걸친 위기를 극복하고 나눔과 배려로 흑룡처럼 비상하는 한해가 될 것을 다짐한다.

경상남도지부

'조화와 소통으로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 주부교실'로

〈회장 **김점숙**〉

대망의 임진년!

올해 경제가 더 어려울 것이라는 경제전망을 바라보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협력하여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잘 대처해 나감으로써 새해에 떠오르는 밝은 해처럼 우리 사회를 더욱 밝고 빛나게 만드는 리더가 바로 우리 여성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하면서 새로운 마음을 다짐해 본다.

우선 시 · 지회 조직과 다양한 주부교실 가족의 참여로 "전국주부교실 경남지도자 한마음 대회"를 개최하여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고 조직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교육 사업으로 제 32기 주부대학, 제 18기 부부대학교육 과정을 개강하여 우리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복한 가족관계 형성, 올

바른 식생활습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공동체 구현, 특히 양성평등으로 여성인재를 발굴하여 사회진출과 봉사활동의 기회를 만들어줌으로써 "조화와 소통으로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 한 해"로 열어 갈 것이다.

그리고 지난해 도서 2,000여권을 모아 〈열린 주부교실 도서 나눔터〉를 개설, 도서관을 개방하여 시민의 정서와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데 힘써왔으며, 계속적으로 도서모음 운동을 전개하여 범도민 책읽기운동을 권장할 것이다.

소비자 보호운동으로 다양한 명예감시활동, 학원모니터링, 물사랑운동 도·농 교류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먹기운동 및 농촌체험활동, 학교폭력 근절을 예방활동, 학교주변의 불량식품 판매근절 운동 등을 실천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보호 운동에도 혼신의 노력을 기울려 나갈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지부

녹색소비환경 조성에 노력 기울일 것

〈회장 **김영희**〉

흑룡이 비상하는 임진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한 해는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되면서, 국제적인 관광지로 한 걸음 더 나아가려는 도약의 기회를 갖추었다.

우리 주부교실 제주도지부는 이러한 용의 기상처럼 새해는 힘차게 도약하는 한해로 만들어 나가겠다. 먼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제주도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녹색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을 통하여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 또한 녹색가정만들기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학교와 가정에서도 녹색소비환경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두 번째는 제주문화유산지킴이 양성교육을 실시할 것이다. 제주는 이제 세계 속의 제주로 거듭나고 있다. 따라서 내 고장 제주의 문화유산을 바로 알고 문화유산에 대한 감수성 함양과 문화유산에 대한 전문지식을 통하여 주부들의 사회성을 개발하고 봉사정신을 지닌 세계적인 '문화유산지킴이'로 양성할 것이다.

세 번째는 제주지역에서 생산하는 우수한 농·수·축 특산물에 대해 물품과 가격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지사가 인증한 고유의 상표 "J 마크" 부착상품에 대한 소비자 모니터링을 전개하겠다. 이러한 활동은 제주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상품을 제주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며, 특히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그 우수성이 널리 홍보가 된다면 소비확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아무쪼록 임진년 한해는 주부교실 여러분 모두에게 희망의 미래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고, 보다 많은 행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

설 제수용품, 재래시장이 가장 저렴

– 4인 가족 설 차례상 평균 비용 257,210원 –

연초부터 물가 불안 심리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본회 대전광역시지부에서는 지난 1월 9일~10일 대전지역 내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SSM, 전통시장 등 31곳에서 주요 설 성수품 36개 품목을 대상으로 가격조사를 실시했다. 다음은 조사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재래시장, 백화점 대비 품목별 가격차 최대 159.1% 저렴

설 성수품 33개 품목을 대상으로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SSM, 전통시장의 평균 판매가격을 비교한 결과, 싼 품목수가 가장 많은 곳은 전통시장으로 조사 대상 33개 품목 중 29개 품목에서 가장 저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비싼 품목수가 많은 곳은 백화점으로 21개 품목이었고, SSM는 7개 품목, 대형할인매장 5개 품목에서 비싼 것으로 나타나 전통시장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태별로 비싼 품목과 싼 품목의 가격차를 보면 도라지(국산)가 159.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고사리 134.2%, 쇠고기(국거리) 110.0%, 대추 106.0%, 쇠고기(등심) 93.3% 순으로 가격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 설 차례상 평균비용, 대형마트만 작년보다 4.3% 올라

4인 가족을 기준〈표-1〉으로 백화점에서 제수용품을 구입할 경우 318,985원이 들어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되었고, 대형할인매장은

<표-1> 2011년 대비 2012년 기본 차례상 비용 (4인 가족 기준)

	총평균가	백화점	할인마트	SSM	전통시장
2011년	257,972	319,774	244,010	262,010	206,093
2012년	257,210	318,985	254,461	252,831	202,561
등락폭(%)	-0.3	-0.2	4.3	-3.5	-1.7

<표-2> 주요 품목별 상승률 · 하락률 비교표

오른 품목 (18개 품목)	내린 품목 (13개 품목)
깐녹두(국산/수입산), 밤, 대추(국산), 곶감(국산/수입산), 도라지(국산), 고사리(수입), 동대포, 계란, 부서(수입산), 돼지고기, 산자 밀가루, 식용유, 포도씨유, 청주, 약과	배, 사과, 단감, 배추, 양파, 무, 도라지(수입산), 고사리(국산), 황태포, 쇠고기, 닭고기, 가래떡, 참기름

254,461원, SSM 252,831원, 전통시장은 202,561원으로 전통시장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인 가족 기준 설 차례상을 전통시장에서 구입할 경우 백화점보다 116,424원이 저렴하였고, 대형할인매장보다 51,900원, SSM보다는 50,270원 저렴했다.

한편, 4인 가족 기준 설 차례상 비용을 작년과 비교해보면 백화점에서 설 성수품을 구입할 경우 작년보다 789원(-0.2%)원, SSM은 9,179원(-3.5%), 전통시장은 3,532원(-1.7%) 비용 부담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형할인매장은 10,451원(4.3%) 비용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설성수품 31개 품목 중 18개 품목 가격 올라

설성수품 31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해 본 결과〈표-2〉, 작년보다 가격이 오른 품목은 18개 품목이고, 내린 품목이 13개 품목이었다. 농축수산물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밤으로 지난해 설보다 51.0% 인상되었고, 그 다음으로 돼지고기(목심) 24.1%, 수입곶감 23.1%, 약과 20.2%, 부서 18.9%순으로 인상되었다. 반면 배추는 58.6%로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무 33.3%, 양파 27.4%, 단감 9.0%, 배 8.2%, 사과 6.9% 순으로 일부 과일가격과 채소류 가격이 인하되었다.

◆ 결론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SSM, 전통시장의 상품 판매가격 비교 결과 싼 품목수가 가장 많은 곳은 전통시장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월등하게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차례상 가격을 비교해도 전통시장이 백화점 구입가보다 11만원 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가격비교 조사를 종합해 보면, 재래시장이 대형마트 등에 비해 편의성 등은 다소 떨어지나 가격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통시장 이용이 가계지출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회복에도 많은 보탬을 줄 수 있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 선택이 필요하다.

〈자료제공 : 본회 대전광역시지부〉

정장 구입시 유의사항

– 정장 의류 마모 및 헤짐 관련 분쟁 꾸준히 늘고 있어 –

최근 신발, 의류 관련 소비가 증가하고 있지만, 해당 제품 소재 특성뿐만 아니라 착용 · 세탁 · 보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회는 외부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해 매주 수요일 <의류 및 세탁물 심의센터>를 운영해 하자발생 원인 및 책임소재 등을 심의해 분쟁 해결을 중재하고 있다. 이번 호부터 빈번히 발생하는 주요 피해 사례 및 처리 결과를 소개해 소비자 정보를 제공한다.

본회에 접수된 사례 중 정장의 마모 및 해짐으로 소비자와 업체간의 분쟁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소비자가 정장 상하를 구입한 후 몇 회 착용하지도 않아서 목 부분 칼라와 소매 끝 부분 등 헤짐 현상으로 구입한 매장을 방문해 의류 심의를 접수했다. 해당 매장 측에선 소비자 단체로 심의를 접수했고, 심의 결과 소비자의 착용 과정 중 외부 물체 등에 쓸려 마모되었다고 통보 받았다.

이에 소비자의 판단으로는 의류를 구입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렇게 원단 손상이 발생됨은 원단의 내구성이 약하여 발생된 하자로 생각되었지만, 업체 측 심의 결과에 따라 교환해 주지 못한다고 하여 소비자 직접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안내를 받아 본회의 〈의류 및 세탁물 심의센터〉에 접수하여 관련 제품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했다.

본회의 심의에선 혼용률 모 25%, 견 75% 혼합사로 구성되어진 제품으로 마찰에 대한 섬유 내구성이 약하다는 심의 결과가 나왔으나 구체적인 원인 규명을 위해 해당 업체에 동일 원단을 요구해 한국 소비자원에 분석 의뢰를 요청했다.

분석 의뢰 결과, 해당 섬유제품의 마모 강도는 시험 기준 20,000회이어야하나 실험 결과 9,100회에 불가해 본회의 심의 결과대로 마모 강도가 약함으로 드러나 관련 시험성적서 결과를 업체에 통보하여 소비자 과실이 아닌 제품 하자로 소비자에게 환불조치 받도록 처리하였다.

〈정희중 / 본회 소비자국 간사〉

소비자 주의사항

예전부터 남성 정장의 경우 견사가 들어간 혼합사로 이루어진 제품이 판매되고 있고, 소재 특성상 내구성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어 관련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제품 구입시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를 확인하고, 구입 후 착용 또는 세탁 전 세탁방법 등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소비자의 소리

특정일에 배송될 택배 물건 계속 지연돼

내용 소비자가 인터넷쇼핑몰에서 특정일에 선물용으로 사용할 물품을 구매하고 지정한 날짜 1월 7일에 배송받기로 하였으나 물품이 도착하지 않았다.

택배회사에 문의하니 배송기사가 운송 중에 다른 물품으로 인해 물품박스가 오염되어 배송하지 못하고 보관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10일 오전까지라도 배송하도록 요구했으나 택배기사는 물건이 차량 안쪽에 탑재되어 빠른 시간 내 배송이 불가하다고 하여 서비스 불량에 대해 항의했지만 처리가 계속 지연되어 본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처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택배 표준약관에 의하면 택배지연 의 경우, 인도 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단, 운송장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하며,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본회에서 택배 본사에 운송장 번호로 담당 지점을 확인하고 지점 소장에게 택배기사의 배송지연과 서비스 불량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고, 특정일에 배송될 운송물의 배상규정을 알렸다. 이에 택배회사 측은 배송지연에 대해 운임액의 200%를 배상해주기로 했으며 박스 부분만 오염되고 물품에는 손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에게 해당 물품 당일 배송과 함께 손해 배상액을 지불했다.

품질보증기간 후 고장 난 김치냉장고 교체 문의해

내용 소비자는 김치냉장고를 4년 전 구매하여 사용하던 중 보관 상태에서도 김치의 맛이 지나치게 숙성되어 A/S를 신청했다. A/S 기사가 방문하여 점검해 보고는 수리가 되지 않으니 보상가액을 적용하여 교체하라고 했고, 소비자는 부품이 없어서 수리가 안 되는 건지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인지 재확인을 원했고 변질된 김치는 보상받을 수 없는지 본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처리 본회에서 김치냉장고 업체 측에 확인해본 결과 김치냉장고의 내부에서 가스가 누수가 되어서 수리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가전제품 경우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리가 불가능할 때는 제품의 사용기간과 구매가격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이 가능하므로 소비자는 보상가액에 금액을 추가하여 유사 기종의 김치냉장고로 교체하고, 변질된 김치는 시중 판매가를 기준으로 환급 받는 것으로 보상처리 되었다.

구독의사 없는 종친회 월간지 대금, 기부금 명목으로 지불 강요해

내용 구독을 신청한 적이 없는 책자가 종친회 이름으로 소비자에게 발송되어 소비자는 원하지 않은 책자여서 방치한 상태로 분실되었다.

얼마 후 종친회로부터 책자를 받은 대가로 기부금 형식으로 190,000원의 기부금을 내라는 연락을 받았고 소비자가 동의하지 않자 책자를 반품하라고 하여 분실했다고 하니 100,000원만 기부하라고 하여 임의로 보낸 책자에 대해 기부를 해야 하는지 본 상담실에 문의하였다.

처리 일반적으로 본인이 신청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보낸 책자에 대한 대금을 기부금 명목으로 지불할 의무는 없으나 구독을 원치 않을 시 책은 반품을 해야 한다.

본 상담실에서는 종친회 측에 책 구독의 대가로 기부금을 내야한다는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책자를 발송하고 기부금을 종용하는 것에 대해 부당함을 알렸고, 이에 종친회 측은 더 이상 회원에게 기부금을 요구하지 않고 책자 비용은 면제하기로 처리 종결되었다.

소비자 사정으로 공원묘지 해지, 해당 업체 환불 거절해

내용 6개월 전에 소비자가 공원묘지를 계약하면서 계약금을 지불하고 한 달 정도 지나서 중도금을 지불하였다. 그 후 소비자는 건강상의 문제로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계약한 공원묘지에 대해 해지요청을 하였으나 공원묘지 측에서는 해지시에 계약금 뿐 아니라 중도금까지 환불이 안 된다고 하여 소비자가 본 상담실에 도움을 요청했다.

처리 공원묘지 해지에 대한 별도의 소비자 규정은 없으므로 계약 당시 약정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이에 계약 내용을 확인해 보니 계약서상에도 중도 해지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미 중도금까지 지불된 상태여서 해지요구가 쉽지 않고 소비자가 법적으로 요구해야 할 상황이었다.

따라서 본 상담실에서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가피한 계약 해지 요구와 몇 달 동안 묘지가 계약 상태로 있었던 공원묘지 측의 입장을 감안하여 위약금 조정을 중재했으며 중재 결과, 소비자에게 위약금 3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하고 해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김영란/ 중앙회 소비자상담실장)

그것은 정말 상상이었을까

신 중 선 / 소설가

마루를 청소하다가 말라비틀어진 지렁이 한 마리를 발견했다. 실내로 들인 화분에서 나온 것임에 틀림없다. 뭐 하러 기어 나와 죽음을 자초했을까에 대해 잠시 생각하자니 어린 시절의 장면 하나가 불쑥 떠올랐다. 실제인지 상상의 산물인진 자신이 없다. 다만 실제상황이라면 무대는 시골이다.

아슴아슴한 기억 속의 풍경을 끄집어내자면, 당일은 화창했지만 그 전날 큰비가 내렸기에 땅이 축축이 젖어있었다. 끝없이 이어진 담벼락이 기억에 등장하고 담벼락과 땅 사이에 제법 큰 공간이 있었다. 당시 시대상황으로 봐서 담벼락이 시멘트일 확률은 극히 적은데, 어쩐지 내 눈앞엔 회색만이 어른댈 뿐 사립문이라든가 느티나무와 같은 목가적인 풍경은 등장하지 않는다. 동네 어른들이 저마다 굵은소금이 들어있는 양재기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들은 일렬로 늘어서서 공간을 향해 소금을 흩뿌리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 틈에 작은 내가 끼어있었다.

나도 어른들을 따라다니며 소금을 뿌렸던 걸로 기억창고에 저장돼있는데, 그것이 실제 일어난 일이라면 내 나이 서너 살 무렵이었을 거다. 이후론 서울에서 살았으니까 절대 그 나이를 넘진 않는다. 또한 그 광경이 사실이라면, 대체 지렁이를 잡아 뭐에 쓰려고 했을까.

내겐 이처럼 실제상황인지 내 스스로 지어낸 것인지 도통 분간해내기 어려운 장면들이 언뜻 수면 위로 떠오를 때가 있다. 숱한 세월이 흘렀으니 애매모호한 기억들은 훨씬 더 왜곡되어 내 머릿속에 떠다닐 터이지만, 생각을 가다듬어 그것들을 끄집어내보려고 한다.

어느 한 시절,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였다. 이때 나는 오후반이었고 등굣길이었다. 끝이 없을 것만 같은 두 줄 철로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두 팔을 활짝 펴서 철로 위를 조심조심 걸어보기도 하고 침목 하나하나를 힘주어 디뎌보기도 했다. 그러다 그 놀이가 싫증나자 지천으로 깔린 자갈 위로 내려섰다. 바로 이때 불현듯, 정말이지 느닷없이 빗소리가 귀를 때렸다. 쏴아. 깜짝 놀란 나는 절로 목이 움츠러졌다. 하지만 내 몸은 비에 젖지 않았다. 놀랍게도 소낙비는 철로 저편에만 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하늘을 딱 이등분해 놓은 것처럼 이쪽 하늘은 그지없는 파란 색이고 다른 쪽은 먹구름으로 가득했다. 의구심에 눈을 두어 차례 끔벅였으려나? 다시 봐도 분명했다. 철로를 사이에 두고 오른쪽에만 소낙비가, 그것도 굵은 빗줄기가 쏟아져 내렸던 것이다. 황망해하는 사이 비는 거짓말처럼 뚝 그쳤다. 이토록 오랜 세월이 흘렀으니 자신이야 없지만 기껏해야 한 30초 아니면 그 시간도 채 안 된 순간에 일어난 것 같다.

나는 드디어 학교에 도착했고 교실에 들어가자마자 아이들에게 내가 목격한 사실을 그대로 얘기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똑똑히 본 광경이긴 하지만, 내가 생각해도 어이없는 일인지라, 어쩐지 자신이 없어져서 이후론 그 얘길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않았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본다. 정말 저쪽 편에만 비가 왔던 것일까?

엇비슷한 시기로 추측되는 확실치 않은 기억인데, 과외를 같이 하던 아이들 가운데 한 남자아이와 얽힌 이야기이다. 사립학교 추첨에 떨어진 후 공립학교에 다니던 나는 사립학교 학생인 그 아이를 부러워했다. 귀티 흐르는 데다 부자 부모를 두기까지 했던 그 아이를 남모르게 흠모하느라 과외하는 날만 기다렸다. 어느 밤으로 기억된다. 그날따라 공부가 늦게 끝나게 되었는데 과외교사가 그 아이더러 나를 바래다주고 집으로 가라고 했다. 그날, 그 깜깜한 밤에 그 아이가 내 손을 슬며시 잡은 것도 같은데, 이 또한 실제 상황이었는지 내 상상이었는지를 도통 모르겠는 것이다. 그 아이와 헤어지고 자려고 누웠을 때 그 사실을, 그 기쁨을 상기해보고자 무던히도 애썼지만, 정말 그 아이가 내 손을 잡았는가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는 것이 뭔가에 홀린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거다. 기분이 묘했다.

또 하나 수상쩍은 일이 문득 떠오른다. 당시 나는 서너 채의 양옥이 들어앉아있는 골목길의 막다른 집에 살고 있었다. 컴컴한 밤, 골목길 초입에 막 들어서는데 현제명 작곡의 '그 집 앞'이 들려왔다. 그즈음의 음악시간에 배운 노래였다.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 그리워 나도 몰래 발이 머물고……"라는 가사로 시작되는 가곡이다. 난 노래에 이끌려 그 집 앞으로 다가갔고 이때 그 집의 텔레비전 화면이 눈에 들어왔다. 드라마가 한창이었다. 척 봐도 추리물이었다. '그 집 앞'이 배경음악으로 깔린 가운데 한 남자가 막 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여자를 납치하는 장면이었다.

숨 죽여 몇 분간 그 집 앞에 멈춰 서서 드라마를 시청했다. 나는 분명히 보았지만, 그러나 그건 가당치도 않은 일이었다. 집장사가 똑같이 지어 판매한 그 집들은 서로가 대문을 마주보고 있었으며 골목을 향해 뚫어놓은 창이라야 당시 내 키로는 어림도 없는 높이에 자리한 작은 것이기에. 그렇다면 나는 어디서 그 드라마를 봤던 것일까.

경남 거창 출생. 이화여대 졸업. 자유문학 소설부 신인상, 제3회 자유문학상, 제2회 대한민국소설문학대상 수상. 장편소설로 〈하드록카페〉 〈비밀의 화원〉 〈돈워리 마미〉가 있고 소설집으로는 〈누나는 봄이면 이사를 간다〉와 〈환영 혹은 몬스터〉가 있다.

90분의 훈훈함

이 춘 반
본회 주부대학동문회 부회장

주부대학동문회 사업의 일환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나누어 밝은 사회를 만드는데 동참하고자는 취지에서 아주 작고 미흡한 봉사단을 조직하고 기금은 임원 기대표님들이 중심이 되어 입지 않는 옷을 모아 자체 바자회를 통한 수입금과 관심을 가지 회원 중 개인 또는 기에서 찬조의 성의를 보여주셔서 적은 기금이지만 봉사 기금 통장을 개설하게 되었다.

2011년 마지막 달인 12월 20일은 전깃줄을 윙윙 울리는 매섭고 차가운 바람으로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그날 동문회 이정숙 회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일행 열명은 서울광장에서 열린 〈겨울철 에너지절약 캠페인〉에 참석하고 오후 3시경 은평구 구산동에 위치한 애인을 돌봐주는 〈한마음 주간 보호센터〉를 찾아갔다.

5층 건물에 4층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 초인종을 누르니 가냘프게 생긴 여선생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셨다. 실내로 들어가니 나름대로 반기는 모습이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웃음으로 덩실덩실 춤을 추며 돌아다니고 아무 반응 없이 구석에 앉아 있는 등 다양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은 심정으로 손을 잡고 품에 안고 등을 두드리는 등으로 첫 만남을 가졌다.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대상자는 지적장

애자 11명, 자폐성 장애자 3명 모두 14명이며 성별로는 만자 11명과 여자 3명으로 나이는 16세~35세까지 있는데 여선생님 두 분과 남자 보조교사 한 분, 도우미 선생님이 한 분이 계셨다.

선생님들과의 소통도 어렵고 고집도 무척 셀 뿐더러 아무 반응도 없이 묵묵부답으로 앉아 있다가 별안간 소리를 지르고 침을 질질 흘리며 정말 통제가 되지 않는 청소년들을 선생님들께서 수시로 이름을 부르시며 사랑의 손길로 머리도 쓰다듬고 어깨를 두드리시며 한 명 한 명에게 사회적응과 재활을 돕고 교육하시며 선생님으로서의 사명감으로 포기하지 않고 볼을 대고 비비고 침을 닦아 주시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절감했다.

그 광경을 본 우리도 함께 게임도 하고 손을 잡고 취고 춤도 추고 안아도 주고 '1:1 미팅' 시간도 갖으며 아무 생각 없이 그들과 호흡을 같이 하며 90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준비한 작은 선물을 전달할 때에는 모두들 얼굴에는 웃음 꽃을 피우고 환호하며 즐거워함성을 지르며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며 매서운 찬 바람에 꽁꽁 얼었던 몸과 마음이 따스한 온기로 녹아 내렸다.

헤어져야하는 시간이여서 다시 한 번 끌어안고 등을 두드리고 또 만나자는 기약을 하며 아쉬워서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겨 지하철 의자에 몸을 맡기니 그들이 모습이 뇌리에 떠오르며 겨자씨알 만한 작은 나눔이었는데 마음에 훈풍이 불어옴을 느꼈다.

우리들의 나눔의 시작은 아주 작지만 나중은 아주 창대한 나눔의 결실을 맺는 우리 주부대학 동문회 봉사가 지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중앙회 소식

2012년도 시무식

지난 1월 4일 본회 4층 강당에서 안명수 회장을 비롯한 15개 시도지부 회장 및 임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도 시무식〉을 갖고 사회발전을 기여하는 봉사단체로서 가치 있는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다짐하며 주부교실 발전을 기원했다.

합창단 창단 24주년 기념식 및 총회

합창단(단장 주순임)이 1월 16일 본회 3층 강당에서 창단 24주년을 기념하며 총회를 가졌다.

의류 및 세탁물 피해, 이렇게 상담하세요!

중앙회에서는 소비자와 업체간 의류 및 세탁물 관련 분쟁해결을 위해 매주 수요일 〈의류심의분쟁조성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 발생시 다음의 내용을 참조해 소비자 피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접수시간 : 매주 화요일 9:30~17:30까지
- 접수방법 : 직접 접수 또는 퀵서비스 이용
  (지방에 한해 택배 가능)
  〈세탁접수 · 처리부〉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첨부
- 접수문의 : (02)2265-5870, 2273-6300, 2485
- 홈페이지 : www.nchc.or.kr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5가 19-3

지부소식

전국 16개 시·도 지부 232개 시·군·구 지회

부산광역시지부

신년회

시지부(회장 김기묘)에서는 지난 1월 12일 시지부 강당에서 임원 및 회원 80여명이 모인 가운데 신년회를 갖고 시지부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계획 논의 및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농산물 원산지표시 캠페인

시지부에서는 지난해 12월 16일 부산역 광장 내 음식점을 돌며 원산지 표시제 홍보와 함께 원산지 둔갑 판매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고, 올 1월 12일 농산물 명예감시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 70여명과 함께 충무동 새벽시장에서 원산지 표시제 및 재래시장 애용하기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대구광역시지부

에너지절약캠페인

시지부(회장 손기순)에서는 동절기 에너지 사용 증가로 인한 전력난 해소를 위한 에너지절약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6일 회원 20여명이 엑스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에너지 절약 실천 결의대회에 참석해 에너지절약 범실천 운동 동참을 다짐했고, 9일과 19일에는 에너지관리공단 대경지역본부 직원들과 함께 죽전 네거리와 반월당 네거리 앞에서 각각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전개해 녹색생활 실천의 중요성을 홍보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했다.

농산물 원산지표시 캠페인

농산물 명예감시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 30여명은 설을 앞둔 지난 1월 17일 서문시장, 칠성시장, 팔달시장 등 전통시장 3곳에서 각각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홍보와 함께 원산지 둔갑 판매 등 부정유통 방지 캠페인을 전개했다.

인천광역시지부

시지부 회장 이취임

시지부(회장 이순애)를 이끌어주신 한혜자 회장이 개인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어 지난 1월 17일자로 이순애 신임 회장이 취임했다.

신임회장은 가정폭력 상담소 상담위원, 인천마약퇴치 운동본부 교육 강사 등을 거쳐 지난 2006년부터 인천시지부 부평구 지회장으로 재

임하며 주부교실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광주광역시지부

시무식 및 월례회의

시지부(회장 박영희)에서는 1월 3일 강남회관에서 임원 및 실무자 19명이 한 자리에 모여 시무식 및 월례회의를 갖고 올해 추진할 사업에 대한 구체적 논의 및 결속 강화의 시간을 가졌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캠페인

농산물 명예감시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 20여명이 지난 1월 17일 양동시장, 말바우 시장에서 각각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홍보와 함께 원산지 둔갑 판매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대전광역시지부

제22회 정보전시회

시지부(회장 송병희)에서는 지난해 12월 1일~7일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 10층 전시실에서 소비자의 날을 기념하며 소비자 운동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소비자 정보 전시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22회를 맞은 이번 전시회는 '소비자의 안전권 확보'를 위한 주제로 다양한 소비자 피해사례 전시를 비롯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활용품 및 식품 안전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는데 기여하고자 했다.

울산광역시지부

부모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도자기 체험

시지부(회장 박보봉)에서는 지난해 12월 11일 부모와 자녀 45명과 함께 경주 서라벌요를 방문해 도자기 만들기 체험을 통해 가족 간 서로를 이해하며 친밀감을 쌓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물가 안정 캠페인

지난 1월 13일 농산물 명예감시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 15명은 신정시장 일대에서 설 대비 물가 안정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며, 가격 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 준수 등 계도를 통해 건전한 소비문화 확립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했다.

모니터 및 명예감시원 간담회

1월 17일 시지부 문화교실에서 농수축산물 명예감시원 및 소비자 모니터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 27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주요활동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한 소개를 비롯해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여 회원 간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지부

시무식 및 원례회의

도지부(회장 박명자)에서는 지난 1월 11일 도지부 사무실에서 운영위원 및 실무자 30여명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시무식을 가졌고, 이후 근처 음식점으로 자리를 옮겨 신년 월례회의를 열어 2011년도 사업실적 및 평가회, 2012년도 사업계획 보고 등 도지부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물가조사 등 각종 조사 사업

광명시지회(회장 장대숙) 회원 13명은 첫째, 셋째 수요일 인근 생필품 할인점 12곳을 방문해 주요 생필품 소비자 가격 조사 및 유통업체 물가 조사를 실시했고, 둘째와 넷째 수요일 물가 모니터 3명은 가격파괴 업소를 대상으로 가격조사를 실시해 올바른 소비자 가격 제공 및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고자 했다.

원산지표시 및 물가안정 캠페인

구리시지회(회장 정순진) 회원 15명은 지난 1월 10일 구리 시장 앞에서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홍보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해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근절에 앞장섰고, 17일에는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이용하기 캠페인과 함께 겨울철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전개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수원시지회(회장 최규숙)에서는 지난 1월 17일 회원 및 관계 공무원 60여명이 갤러리아 백화점 사거리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안정 캠페인을 전개해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에 앞장섰다.

오산시지회(회장 장춘화) 회원 7명은 1월 11일 인근 재래시장에서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고, 18일에는 회원 30명이 설 대비 물가안정 캠페인을 전개해 올바른 소비문화 정착에 앞장섰다.

용인시지회(회장 장복희) 회원들은 지난 1월 11일 인근 재래시장 일대에서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감시 및 계도 활동을 전개해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근절에 앞장섰다.

평택시지회(회장 박계숙) 회원 25명은 설을 앞둔 1월 19일 송북시장에서 물가 안정 캠페인을 전개해 건전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했다.

여주군지회(회장 권영림) 회원 27명은 지난 1월 17일 중앙통과 재래시장 일대에서 재래시장 이용하기 및 물가 안정 캠페인을 전개해 건전 소비문화 홍보에 앞장섰고, 20일에는 9명의 회원이 우리 농수축산물의 우수성 및 원산지 표시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한편, 회원 5명은 매주 월요일 군내 위치한 노인복지회관을 방문해 중식제공 준비 및 배식 설거지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봉사활동

부천시지회(회장 안현숙) 회원 6명은 삼광요양원을 방문해 정성껏 마련한 식료품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성남시지회(회장 강용선) 회원 10여명은 지난 1월 4일과 2월 10일 중

원구 상대원1동, 2동 복지관을 각각 방문해 무료 급식 제공과 함께 청소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안양시지회(회장 이영옥) 회원 10명은 지난 1월 2일과 10일 호계 노인복지관과 동안 노인보지관을 각각 방문해 중식 제공을 위한 조리 보조 및 배식 설거지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강원도지부

봉사활동

강릉시지회(회장 최성래)에서는 지난 1월 17일 모자보호시설 '성은모자원'을 방문해 생활용품을 전달하며 위로 격려했다.

태백시지회(회장 오영희) 회원 3~5명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태백시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태백노인전문요양원을 각각 방문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인들을 위한 목욕 도우미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설을 앞둔 1월 17일 회원 5명은 황지연못 주변에서 열린 '안전 점검의 날 캠페인'에 참여했다.

양구군지회(회장 최경지) 회원 16명은 지난 1월 5일 노인복지시설 '안나의집'을 방문해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대접하며 노년의 쓸쓸함을 위로해 드렸다.

홍천군지회(회장 이영표) 회원 7명은 지난해 12월 27일 군내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과 조손 가정을 위해 김장김치를 담가 전달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충청북도지부

물가안정캠페인

충주시지회(회장 오미영) 회원 20명은 설 명절을 앞둔 1월 20일 충주시 전통시장에서 물가 안정 캠페인 및 전통시장보기 행사를 개최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 동참을 유도했다.

봉사활동

진천군지회(회장 최경옥) 회원 7명은 지난 1월 10일 군내 거주하고 계시는 독거노인 댁을 방문해 위로금과 생필품을 전달하며 노년의 쓸쓸함을 위로해 드렸다.

충청남도지부

신년회 및 월례회의

도지부(회장 조춘자)에서는 지난 1월 17일 도지부 사무실에서 임원 및 실무자 4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신년회 및 월례회의를 갖고 2011년도 사업평가 후 올해 사업에 대한 발전 방향 및 추진 방법 등을 논의했다.

물가안정 및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

도지부(회장 조춘자)를 비롯한 16개 시 · 군지회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올 설 명절 기간까지 지회별로 물가안정 및 원산지 표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해 건전 소비생활 실천의 필

요성과 함께 원산지 부정 유통 근절에 앞장섰다.

전라북도지부

소비자 모니터 회의

도지부(회장 강정자)에서는 지난 1월 6일 하나대투증권 3층 회의실에서 소비자 모니터 회의를 가졌다.

소비자 모니터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 23명을 대상으로한 이번 회의에서는 모니터 활동뿐만 아니라 명예감시원으로서의 역할 및 의무에 대한 소개를 비롯해 관련 활동 활성화를 위한대책 등을 논의했다.

봉사활동

군산시지회(회장 박희순)에서는 지난 1월 2일 군내 거주하고 계신 독거 노인 4분에게 위로금을 전해드렸고, 19일에 회원 25명이 군산공설시장에서 열린 '재래시장 살리기' 행사에 동참해 설 성수품 등을 구입했다.

김제시지회(회장 문순희) 회원 8명은 지난 1월 6일 노인복지시설 '평강의 집'을 방문해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위한 목욕 도우미 봉사와 함께 말벗이 되어 드렸다.

남원시지회(회장 박문화) 회원 20명은 매주 금요일 주 1회 5명이 한 조가 되어 남원경로당을 방문해 쓸쓸한 노년을 보내고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다과를 대접하며 말벗이 되어드렸다.

익산시지회(회장 김채숙) 회원 5명은 가나안 사랑 요양원과 백세요양원을 각각 방문해 생필품 등을 전달했고, 23일과 26일 회원 10명은 익산시 공원묘지를 찾은 성묘객들에게 따뜻한 차 대접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정읍시지회(회장 김순자) 회원 28명은 1월 13일 가정 형편에 어려운 이웃 8가정을 각각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하며 위로 격려했고, 그린푸드존 감시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 4명은 1월 16일~18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문방구, 분식점, 슈퍼마켓 등에서 어린이 식품 안전지킴이 활동을 전개했다.

무주군지회(회장 김순득) 회원 15명은 1월 한 달간 교대로 무주군 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어르신을 위한 식사 제공 도우미 봉사활동을 실시했고, 20일에는 회원 15명이 청아요양원을 방문해 설을 맞아 외롭게 생활하고 계시는 어르신에게 다과를 대접하며 말벗이 되어드렸다.

부안군지회(회장 최덕례) 회원 8명은 지난 1월 6일 군내 거주하고 계신 독거노인 3분에게 정성껏 준비한 밑반찬과 내복 세트를 준비해 전달하면서 노년의 외로움을 위로해 드렸다.

완주군지회(회장 안춘자)에서는 주 1회씩 군내 거주하고 계신 독거노인의 건강 유지에 도움을 드리고자 귀반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정기총회 및 신년회

진안군지회(회장 원성희) 회원 25명은 1월 16일 진안군 아리랑회관에서 신년회 및 정기총회를 열어 지난해 사업 총결산과 함께 지회 발전 방향 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라남도지부

알뜰장터운영 및 신년회

도지부(회장 이송자)에서는 지난해 12월 13일 화순읍 오일시장에서 아나바다 운동 실천을 위한 알뜰장터를 열어 재활용 의류 등을 판매해 자원순환사회 조성에 앞장섰고, 수익금 전액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다. 지난 1월 3일에는 도지부 사무실에서 임원 및 실무자 65명이 모인 가운데 신년 인사회를 갖고 지난 해 사업 추진 결과 보고 및 2012년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봉사활동

광양시지회(회장 신행숙) 회원 24명은 지난 1월 9일 설을 앞두고 어려운 환경에 생활하고 있는 장애우 세대를 방문해 쌀과 생활용품을 전달하며 위로 격려했다.

영암군지회(회장 노영미) 회원 26명은 1월 1일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독거노인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분들을 위해 떡국을 대접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완도군지회(회장 정혜덕) 회원 13명은 지난 1월 1일 새해 해돋이 장관을 보기 위해 일출봉 전망대를 찾은 방문객들을 위한 무료 음료 제공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경상북도지부

자녀와 함께하는 녹색에너지 체험 캠프

도지부(회장 이인호)에서는 저탄소 녹색소비생활 홍보 및 실천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0일~11일 1박 2일로 문경청소년수련관에서 초등학생 4~6학년 학생들과 학부모 90명과 함께 〈자녀와 함께하는 녹색에너지 체험 캠프〉를 개최했다.

기후변화와 저탄소 녹색성장정책 및 에너지절약에 대한 교육을 비롯해 신재생에너지관, 자연생태공원 현장 등 견학 프로그램에 자녀와 함께 참여해 생활 속 에너지 절약 노하우를 배우며 녹색생활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 홍보 캠페인

상주시지회(회장 박정자) 회원 20명은 1월 19일 상주시 중앙시장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들과 함께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해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근절에 앞장섰다.

봉사활동

경주시지회(회장 박추자) 회원 5명은 1월 20일 안강읍 보건소에서 읍내 거주하고 계신 독거노인 30분에게 떡국을 대접하며 노년의 쓸쓸함을 위로했다.

봉화군지회(회장 이유정) 회원 5명은 1월 11일 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위한 목욕 도우미 활동과 함께 다과를 대접하며 말벗이 되어 드렸다. 16일에는 회원 3명이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결혼 이주여성 가정 4가구를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하며 위로 격려했고, 18일 회원 4명은 유리요양원을 방문해 노년을 위로하는 경로잔치를 마련해 드렸다.

영양군지회(회장 최계숙) 회원 6명은 매주 목요일마다 영양군종합복지관을 방문해 독거노인 가정을 위한 반찬을 조리해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울진군지회(회장 김희자) 회원 20명은 읍내 홀로 거주하고 계신 75세 이상 어르신 댁을 방문해 쌀과 라면 등 생필품 전달 및 청소 봉사활동과 함께 노년의 쓸쓸함을 위로해 드렸다.

경상남도지부

사랑의 김장나누기

도지부(회장 김점숙)에서는 지난해 12월 6일 도지부 강당에서 한국수자원공사 경남지역본부와 함께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개최해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 100가정에게 정성껏 담근 김장을 나누어 드렸다.

농산물 원산지표시 캠페인

설을 앞둔 1월 11일에는 회원 40명이 마산 어시장 등에서 원산지 표시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해 농산물 원산지표시 감시를 비롯해 농산물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함을 홍보했다.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신년인사회 및 정기총회

도지부(회장 박영희)에서는 1월 6일 뉴월드뷔페에서 신년인사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해 2011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와 함께 201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통과 등 구체적인 도지부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특별물가조사 및 농산물 원산지 홍보 캠페인

설을 앞둔 지난 1월 10일, 12일, 17일, 19일 도내 중대형 매장 및 재래시장 등 14개 업소를 대상으로 기초생필품 85개 품목 외 설 성수품 6개 품목에 대한 특별물가조사를 실시해 도청 홈페이지에 관련 자료를 게재해 소비자들에 합리적인 가격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1월 20일 농산물 명예감시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 10명이 동문시장 일대 시장 및 음식점 등에서 원산지 표시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해 원산지 부정 유통 근절 및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 마련에 도움이 되고자 했다.

주부교실게시판

▣ 경제특강

세계 경제의 미래가 여전히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우리 경제의 현황 및 전망 등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2012년도 세계경제의 흐름과 우리 경제의 전망"이란 주제로 경제특강을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 일　　시 : 2012년 2월 24일(금) 14:00
- 장　　소 : 한국야쿠르트 강당

▣ 제20회 세계물의 날 기념 심포지움

세계물의 날을 맞이해 본회에서는 올해 물의 날 주제 "물과 식량 안보"에 맞추어 전 세계 물 위기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물의 소중함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심포지움을 개최합니다.

- 일　　시 : 2012년 3월 19일(월) 14:00
- 장　　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대강당

▣ 전국주부교실지도자대회 개최

해마다 1박 2일 과정으로 본회 지도자들의 지도력 향상과 회원 간 결속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전국주부교실지도자대회〉를 올해는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 일　　시 : 2012년 4월 17일~18일(1박 2일)
- 장　　소 : 서울교육문화회관 3층 거문고홀
- 참석대상 : 국 16개 시·도지부 산하 232개 시·군·구 지회 회장 및 임직원 1,200명
- 문　　의 : (02) 2265~0637, 3627, 3628

▣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 수강생 모집

본회가 여성적합직종개발 및 훈련으로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잠재된 직업 적성 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중랑구 소재)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매달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 www.womanpro.org
- 문　　의 : (02) 3409-1948~9

우리의 대표브랜드-삼성
HOW TO LIVE SMART
| 한Q에 시원하게! |

놀랍도록 시원한(寒) 삼성 스마트 에어컨 Q
寒Q에 선택하다 / 냉방은 기본! 청정기능, 스마트Q앱기능, 가습기능, 디자인까지 한 Q에 고르세요
寒Q에 설치하다 / 냉방력과 전기료의 기본은 설치! 단계별로, 음성으로 설치를 한 Q에 확인하세요
寒Q에 컨트롤하다 / 날씨에 맞춰 밖에서도 조절하고 최적모드 추천까지 한 Q에 가능합니다
삼성 스마트 에어컨 Q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smart-aircon.com)참고 및 매장에 문의하세요

삼성전자 SAMSUNG

이제, 나이에 지지 않아요

진화된 레티놀이
5가지 주름을 관리하니까

5가지 주름케어로 링클케어, 리얼이 되다

☑ 깊은 주름 ☑ 표정 주름 ☑ 모공 주름 ☑ 미세 주름 ☑ 속 주름

NEW
주름개선기능성인증

레티놀 에이지 코렉터

IOPE

☑ Wrinkle Care ☐ Whitening ☐ Lifting ☐ Anti-Ageing ☐ Pore Care ☐ Trouble Care ☐ Sun Care ☐ Hydrating